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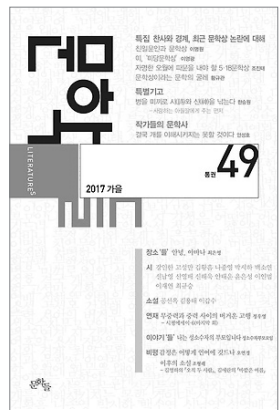
“작품만 좋으면 괜찮나” vs “문학적 성취는 계승해야”

반복되는 친일문학상 논란 해법은?

5·18문학상까지 번진 파장

계간지 ‘문학들’ 논란 조영

문학계, 공론화 필요성 제기



그동안 일부 문단에서 제기해온 친일 문학상 논란은 문학계의 ‘뜨거운 감자’나 다름없었다.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간단치 않은 문제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온 역사적 특수성과 현대와 가장 가까운 근대라는 시간, 그리고 관련자나 후손들이 생존해 있는 현실은 공론화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뒤따랐다.

친일문인문학상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해 한국 문인협회가 이광수·최남선 문학상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가열됐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문단 안팎의 거센 반발로 두 문인의 이름을 내건 문학상은 없던 일이 됐다.

지난 7월에는 송경동 시인이 미당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문학상 거부 뜻을 밝혔다. 당시 송 시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당문학상 후보에 자신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주최측의 연락을 받고 “적절치 않은 상”이라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당의 시적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친일 부역과 5·18 광주학살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그 군부정권에 부역했던 이를 도리어 기리는 상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말미에라도 내 이름을 넣을 수는 없다”고 썼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 발행되는 종합계간지 ‘문학들’이 이번 가을호에서 친일문학상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뤄 논쟁을 끈다. 문학들은 올 봄에 터져나온 친일문학상 논란이 ‘5·18문학상’ 논란으로 불통이 튀면서 지역의 문학잡지로서 어께가 무거웠고, 문학계와 문학상의 문제들을 밝히려는 뜻에서 기



미당 서정주



송경동 시인

획을 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올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해순 시인이 지난 5월 문학상 수상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점화됐다. 김 시인은 “5·18 정신의 무거움을 생각할 때 (수상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재단에 전했고 5·18재단은 김 시인의 뜻을 존중해 올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5·18재단 관계자는 “문단 일각에서 미당문학상 수상자(2006년)가 5·18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김 시인이 수상 사양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학들은 특집 ‘찬사와 경계, 최근 문학상 논란에 대해’를 다루면서 문학평론가 이명원, 시인 이영광, 전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조진태 시인의 글을 실었다.

이명원 평론가는 ‘친일문인과 문학상’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5·18문학상은 그 상의 이름 그대로 5월민중항쟁의 상징성이 높다. 그런데 이 상의 수상자가 일전에 ‘미당문학상’을 수상했던 분이 일러지자, 이에 대한 합당한 반발이 여러 곳에서 제출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당은 청년기의 친일 경력뿐만 아니라,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내내 독재체제에 아합하고 순응하고, 때로는 찬양하면서 능란한 그의 시 세계를 지속시켜온 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학공동체는 문인공동체로 한정되지 않는다. 문인은 작품을 생산하지만, 그것의 매개

와 수용은 출판사를 포함한 문화적 매개기구를 거쳐 독자에게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이영광 시인은 미당의 문학세계와 관련하여 악행을 저지른 자의 작품은 아예 인정할 수 없다거나 삶은 영망이어도 작품만 좋으면 괜찮다는 식의 의견들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인은 ‘이, ‘미당문학상’에서 “나는 한 사람의 글쟁이로서 미당 같은 천품의 시인이 그와 같은 못난 행적을 남긴 사실에 대해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 그의 행적은 윤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면책될 수 없으나 그의 문학의 품질은 평가와 계승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역사의 평가를 수용하면서 문학의 특수성을 고심 속에 보존하는 어려운 길이 있을 것이다. 역사의 외과 수술은 문학의 내과 치료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전 작가회의 회장은 ‘자명한 오월에 파문을 내야 할 5·18문학상’에서 “찬사는 찬사대로 비난은 비난대로 적정해야 한다. 철지난 편견은 식상하다. 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에게 명예가 되고 격려가 되며 되도록 충분히 평가되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당문학상과 5·18문학상을 연결하는 것이 낯선 것처럼 미당문학상 수상자이기 때문에 5·18문학상과는 단절해야 한다는 것도 낯설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복 72주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 한국작가회의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친일문학인 기념문학상을 반대하는 특별전시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친일문학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한 행위를 넘어 제 민족을 소모품으로 희생케 한 반민족적 반인도적 전쟁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와 달리 지난 8월에는 미당 서정주의 문학세계를 집대성한 ‘미당 서정주 전집’(은행나무)이 20권으로 완간됐다. 글의 수집과 교정에 참가했던 편집위원들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주 시인의 과오를 인정하지만 문학적 성취까지 퇴색되선 안 된다는 요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여행을 사랑한 거장들

슈트라우스·모차르트·멘델스존

21일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유기 고야마

광주시립교향악단 제 327회 정기연주회가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주제는 ‘여행이 음악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다. 세기의 음악가들은 그들의 여행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던 것일까. 음악을 통해 그들의 여행에 동행해보자.

김홍재 상임지휘자가 지휘를 맡았고, 플루티스트 유기 고야마가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R.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돈 주앙’,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2번’,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게 교향시는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종의 여행과 같았다. ‘돈 주앙’은 다양한 풍경을 오케스트라 소리로 재현한 작품이다.

모차르트는 독일 만하임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플루트 연주자 엔트링을 만나면서 플루트 협주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1번, 2번)이 탄생한다. 오는 21일 연주되는 곡은 그 중 2번이다.

협연자 유기 고야마는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재팬 필하모닉,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의 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음악가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던 멘델스존이다. 멘델스존은 특히 여행을 사랑했다. 이번 무대에 오를 교향곡은 로마에 머물며 작곡한 곡으로 열정과 싱그러움이 담긴 작품이다.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장이 스케치북” 23일 광주비엔날레 행사

(재)광주비엔날레가 북구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어린이 대상 ‘광주비엔날레 광장스케치북’(사진)을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광주비엔날레 광장스케치북’은 광장을 스케치북 삼아 자유롭게 분필로 드로잉하며 창의성과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표현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체험형 현대미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13일 첫 ‘광주비엔날레 광장스케치북’에서 41개팀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에 펼쳐졌으며 매달 꾸준히 행사를 열고 있다.

작품이 완성되면 심사를 통해 비엔날레상, 광장상, 드립상, 인기상, 노력상을 수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참여의 재미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행사 당일 광주비엔날레 광장에 위치한 등록 데스크에서 참여등록을 선착순으로 하면 된다.

제 5차 광주비엔날레 광장 스케치북은 오는 10월 11일 개최된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사진전시관 ‘사진예술 철학’ 무료 강좌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광주시립사진전시관(운암동 문화예술회관 내)이 사진미학 강좌 ‘명저서로 만난 사진 예술’을 진행한다.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모두 6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기획은 사진사(史)에 빛나는 명 저서와 사진 이론의 소개를 통해 사진예술의 철학적 바탕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어려운 이론서를 사진평론가, 이론가 등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듣는 유익한

자리다.

첫 강의는 발터 벤야민의 대표작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영준 계열예술대학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그밖의 강좌는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 사진에 관한 노트’(박성우 사진평론가·중부대 사진영상학과 교수) ▲발렌 플루서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이영옥 사진가·상명여대 외래교수) ▲수잔 손택 ‘타인의 고통’(김현 전남대 철학과 강의교수) ▲앙드레 바쟁 ‘사진 이미지의 존재론’(박평중 사진평론가·중앙대 다비치 교양대



학 강의 교수) ▲필립 뉘바의 ‘사진적 행위’(이경률 사진평론가·중앙대 예술대학) 등이다. 무료 강좌. 문의 062-613-5405. /김미은기자 mekim@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환,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